



쯔쯔가무시증이란?

- 쯔쯔가무시증은 연중발생하나, 주로 9월~11월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
-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 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

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

- 산림, 공원 및 거리 조경사업, 배수로 공사 근로자 등
- 농업, 임업 근로자 등 - 조경 및 제조작업자 등

쯔쯔가무시균 O.tsutsugamushi 의 매개체



털진드기 유충



풀숲 속 들쥐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이란?

- 최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, 안전보건공단에서는 '작은소피참진드기'의 활동시기 (4~11월)에 야산이나 들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
- '작은소피참진드기'에 물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,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

흡혈 여부에 따른 형태 (왼쪽)



비흡혈 상태



흡혈 상태

Q

'작은소피참진드기'는 주로 어디에 서식하는가요?

-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 서식하고 있으며, 시가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
- 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서식합니다

Q

치명률은 얼마나 되는가요?

- 약 6%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

* 국내의 경우 '작은소피참진드기'가 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은 0.5% 이하로 분석되고 있음

쯔쯔가무시증 &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증상은?

쯔쯔가무시증

주요 매개체: 털진드기

- 발열, 심한 두통, 오한(감기와 유사)
- 가피(피부 딱지), 림프절 종대
- 감염 후 몸통·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났다가 1-2주일 후 소실됨
- 소화기, 호흡기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

주요 매개체: 작은소피참진드기

- 원인불명의 발열 (38°C 이상)
- 위장관계 증상: 오심·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
- 신경학적 증상: 피로감, 근육통, 어눌한 말·경련·의식저하 등
- 출혈증상: 혈뇨, 혈변 등

* 증상에 따라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할 수 있음

쯔쯔가무시증·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공통증상



- 발열

쯔쯔가무시증 특징적 증상



-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(피부 딱지) 형성